

날짜: 5785 년 아브 월 12 일(2025 년 8 월 6 일)

토라 문: 간구하다

주제: 구원의 축도에서 기도로: 3 가지 즉각적인 행동-히즈키아 왕의 기도와 구원

신명기 4 장 7 절에는 “어느 큰 나라가 여호와, 우리의 권능자께 부르짖을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인들은 성전 시대에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1) 제물을 바친 직후에는 도살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모든 제물과 관련하여,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도살하기 전에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이 손 씻기 직후에 지체하거나 중단함이 없이 곧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손을 씻은 직후에는 축도의 간구를 올려 드립니다. 여기서, 손을 씻고 축도 올리는 그 사이에 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두 행동 사이에는 중단이나 불필요한 지연 없이 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구원의 축도를 올린 바로 뒤에는 세모네 에스레이 (송축-간구-감사를 담은 18 가지 일어 서서 올려 드리는 성회의 기도)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축도가 세모네 에스레이 기도 바로 앞에 올려 드러지므로 인하여, 여호와께 기도 올리는 자의 진실하고 진심 어린 기도는 다른 행실의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즉각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제물에 몸을 기대어 즉시 도살하면 제물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 직후 몸을 기대면서 바로 뒤에 제물을 도살하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각인 시킵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제물은 올바른 의도와 생각으로 바쳐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2) 손을 깨끗이 씻고 즉시 축도를 올려드리면, 식사 중에 고소자, 즉 사탄이 자신을 도발하여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그가 쉼마기도를 축도하고 그에 따른 축복을 한 후 바로 세모네 에스레이를 연이어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가 응답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원의 축복을 낭송한 후 바로 기도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도는 더욱 큰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반대로, 그가 구원의 축복을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전능자께서 송축 드리는 간절한 시간에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기도 응답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병들고 고통받는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왕하 20:3; 사 38:3)라는 말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가 행한 이 “선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게마라 (베라코스 10b)는 구원의 축복 직후 세모네 에스레이 기도를 낭송하는 것이 남 유다 왕 중에 의로운 길을 걸으셨던 히스기야왕의 매일 올려드리던 기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게마라에서 "당신의 눈에 선했던 것"이라는 명시되지 않은 언급이 구원의 축복과 세모네 에스레이 기도의 "나란이 대비하며 필연적이다"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라브 후트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잠언 3:6) "너의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아주 미세하고 평범한 활동조차도 창조주 여호와를 위하여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며, 미슈나 아보스(2:12)에서 "네 모든 행위를 천국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에서도 이러한 의무를 반영합니다. 사람은 먹고, 자고, 가족, 친구, 동료와 교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은 특별한 사명이나 의무적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선택적인 소소한 행위들조차도 사명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행위를 행하려는 사람의 의도와 관련하여 이는 책임을 맡은 의무적인 것입니다.

여호와 정하신 거룩한 때가 아닌 주중의 평상시에 늘 상 하는 일, 곧 세속적인 일상의 행위들에도 단순히 순간적인 이득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여호와께 더 가까이 부종 시키고자 하는 신성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거나 네웨쉬 (animated soul)에 인한 느낌에서 방산되는 감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계명들 (*mitzvot*)을 순종으로 준행하고 토라에 영생의 빛을 꾸준하고 부단히 공부함으로써 창조주의 거룩하심을 알고, 거룩(*kadusha*)하시며, 온 피조물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열방에 흩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혼(*nefesh* /네웨쉬)들에게, 거룩함과 세속-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하여 물리적 힘을 얻도록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토라 말씀과 선지서에 계명으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할 때조차도, 그의 모든 의도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과 태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의무적인 것, 즉 자신이 지켜야 할 토라의 계명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반면에,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신성한 의도는 부차적인 위치로 둡니다. 우선순위로 두고 순종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한 행실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향한 봉사의 개인적 최선에 있어서는 더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라브 허트너(Rav Hutner)는 다음 같은 견해를 제시합니다: 자신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의 이행은 의무를 넘어서서 (Beyond the letter of the Law) 행한 것은 아닙니다. 매사 여호와를 위하여, 소소한 영역이라 할 찌라도 Beyond the letter of the Law 를 기꺼이 준행하는 사람은 생명인 토라의 당연한 의무적인 지침을 초월하여 삶의 모든 영역 공 개인의 권한에 속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부분에서도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정성을 모읍니다. 이들은 마땅히 준행하여야 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할 뿐만이 아니라, 고지하지 않은 범주까지 초월하여 자원하는 자들로서 호흡이 기도가 된 삶을 세우는 여호와 은총의 자녀들입니다.

Shalom.